영화 '성철'

개봉 여부 '주목'

유족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감독 "예술창작성 존중을"



◇5월 개봉예정인 영화 '성철'이 완성을 앞두고 유족의 반발에 부딪쳤다.

성철스님의 직계인 불필스님은 2일 영화 '성철'(감독 박철수) 이 스님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인 원드시네텍(대표 이용주)을 상대로 제작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가처분신청서는 "영화의 내용이 성철스님의 출가 배경을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고 스님의 돈오돈수(頓悟頓修)사상과 불교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스님의 초상권과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화에 빕어내용과 불교의 '인연'과 관련된 영화상의 흥미를 표현한 부분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철수감독은 6일 "이번 영화는 성철스님의 개인 다큐멘터리가 아닌 영화적 요소가 가미된 예술 작품이니 만큼 창작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감독은 또 "영화제작에 앞서 성철문도회측과 시나리오에 대한 자문을 수차례 요청했고 세차례에 걸친 시나리오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불필스님이 주장하는 문제의 장면들은 거의 삭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원드시네텍은 "가처분 신청이 철회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생각"이라며 "마지막 촬영을 위한 마무리 작업과 개봉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17일 열린다.

PC통신 의견

○…영화화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때부터 경계했어야 했다. 영화 '유리'와 같이 불교에 대한 모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봉전에 이 영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천리안, PBOBJANG)

○…영화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를 통해 불교와 스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포교가 어디 있겠는가. 큰 문제가 안된다면 관객에게 권을 맡김이 어떨지…. (하이텔, 마리타임)

방송 소식

청주BBS 개국 1돌

청주불교방송(지사장 각현스님)은 23일 오후 6시 흥덕사지 금당 앞 광장에서 개국 1주년을 기념하는 합창제 및 박완일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또 당일 오후1시 청주 예술의 전당 회의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지자제 정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주제로 세미나도 열린다.

25일 청주 불교방송국 10층 문화센터에서는 개국 1주년 기념식과 '아빠 노래자랑'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기독교TV 최종 부도

케이블TV 기독교TV(ch 42·사장 윤재신)가 7일 주거래 은행인 한미은행 선릉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9억9천만원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95년 12월 기독교 각 교단의 모금으로 설립돼 첫 방송을 시작한 기독교TV는 최근 60%의 직원을 정리해고 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121억원의 악성 부채가 남아 있다.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한참동안을 관음정근을 하고 있는데 구인사에 계신 상월스님(당시의 방장스님)께서 내가 하숙하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아니? 스님…."

스님께서는 내 옆에 앉으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도 잘 하거라" 하시면서 등을 다정하게 토닥거려 주시고는 홀쩍 나가시는 것이었다.

"스님, 스님!…."

나가시는 스님을 부르다가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꿈? 내 목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세벽 두, 세 시쯤 되었을까? 나는 너무 놀라 불도 켜지 못하고 동그마니 앉아 골똘하게 생각에 잠겼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잠든 것을 어찌 알고 여기에 오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방장스님을 뵙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꿈이라지만 여기에 왜 오셨을까? 방문이 부옇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멍둥이 트나 보다. 나는 곰곡하지 않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그렇게 아프고 무겁던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나는 다시 몸을 갈게 하고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켰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내가 기지개를 켤 수 있다니.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체조하듯 온 몸을 흔들어 보았다. '이건 기적이야, 기적.' 밖으로 나가 허리를 굽히고 세수를 했다. 다시 방에 들어와 온몸운동을 했다. 나는 흥분이 되었지만 침착하게 달력을 보았다. 6월17일. 음력으로는 윤사월 아십칠일. 내 생일이다. 태어난지 30년만에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는 내 생일이다. 1974년 6월17일.

출근을 하기위해 집을 나섰다. 세상이 너무도 아름답다. 맑은 하늘 싱싱한 나무들. 나는 다시 꿈생각을 했다. 수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꿈생각에 골똘했다. 방장스님이 다녀가신 의미가 무엇일까?

사흘후, 엄마가 오셨다. 우리 집은 대전이고 내 직장은 신탄진이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한달 동안 휴직을 하다가 출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출퇴근이 힘들어 신탄진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대전에서 신탄진은 버스로 30~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얘, 구인사 상월스님이 입적하셨다."

'아! 그랬었구나. 그렇게 된 것이구나.'

"방장스님 열반전 꿈에서 친견 사흘후 그뜻 알게 돼"



그림 · 이준석

사흘 동안의 의문이 이제 풀렸다. 스님은 내 꿈 속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시간에 열반하셨고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주셨다. 비록 꿈속이나마 스님이 찾아주셔서 그날로 나의 모든 병은 씻은 듯이 나은 것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단 한번 찾아뵌 병고의 중생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괴로움을 거두어 가시다니, 무연자비의 고마움에 엎드려 울었다. "스님, 관음보살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대 초반으로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이다. 어느날 우연히 대문 맞은 쪽을 보니 '불교연수원'이란 간판이 보였다.

'불교연수원? 매력적인 이름인데.'

절보다 거부감이 덜하고 시내 한 복판, 자그마한 가정집이라 친근감을 가지고 살짝 들어가 보았다. 그 안에는 부처님이 한 분 계셨고 왼쪽 옆에는 종금이 한대 놓여있었다. 불교와 종금? 그것도 나에게는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내 나이 또래들은 교회로 몰리는 세대였다.

"명숙아, 젊은 애가 고리타분하게 무슨 절에 다니니?"

친구들이 웃었지만 나는 그곳이 참 좋았다. 아마도 부처님과는 전생부터 인연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조명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악행과보 일깨워 선행 유도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⑦



◇지장보살도. 보리암. 조선시대(부분).

지옥도

죽음뒤에는 어떻게 될까. 종교가 생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종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죽음뒤에는 살아생전 처신한 내용에 따라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극락(천당),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에 가 벌을 받는다고 설파하고 있다. 종교화에는 지옥도가 많이 그려진다. 상상화이지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서운 가를 일깨워 나쁜 짓을 그치고 착한 일을 널리 행하도록 하기 위한 데에 참뜻이 있다.

왼쪽그림 중앙에 지장보살이 서있고 그 주위를 시왕과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아랫쪽에는 지옥의 갖가지 형벌이 그려져 있다. 가운데 거울은 업경대로 생전의 행위가 그대로 비추어져 이에 따라 염라대왕이 벌을 내린다고 한다. 오른쪽 그림의 중앙에는 최후의 심판을 하는 예수님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좌우에 12사도가 앉아 있다. 그 위로는 천사, 하단 왼쪽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단 오른쪽에는 불타는 지옥이 있으며 심판에 따라 지옥과 천당행이 결정되어진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지오토 作 '최후의 심판' 1306년. 스코로베니 예배당(부분).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400분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판매합니다.

소리가 보인다

PCS 016

부다피아 포교기금이란?

PCS 016 가입시,「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 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 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 나라

주관:현대불교신문사
후원: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02)732-1522, 737-8881,
FAX:(02)737-0697 (02)737-0698, 0696

PCS 단말기
NO 마진 판매!!